



4월은 잔인한 달?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이솝우화에 낙타가 주인을 내쫓고 천막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있다.

처음에는 코만 천막안에 넣게 해달라고 사정하여 주인의 허락을 얻은 후에는 앞다리, 몸통, 뒷다리의 순으로 낙타가 천막안으로 들어온 후에는 주인을 내쫓는다는 것이다.

목화농사, 밀농사가 그렇게 되었고 콩농사는 낙타가 반쯤 천막안으로 들어와 있다. 쇠고기의 경우에도 금년에는 몸통이 거의 다 천막안으로 들어올 것 같다. 처음에 코만 들어오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돼지고기 수입도 이제 낙타의 코가 천막안으로 들어오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낙타가 코를 천막안으로 넣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이유를 낸다. 수출한 물량만큼 수입한다던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또는 육가공원료에 한해서 일부 극소량 부족분만 수입한다는 것이다.

우선 머리를 천막안에 넣어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쇠고기가 처음 수입되던 76년에는 쇠고기를 수입하다니 말이나 되느냐고 놀라던 우리가 78년에는 부족분을 수입하되 차액을 축

산진흥기금으로 적립해서 소기르는 사람들에 지원해 주어 더 잘살게 해준다고 하면서 수입량을 증가해 왔다.

축산진흥기금이 적립은 되었지만 소파동이 일어났고 농가부채증가의 원흉이 되고 말았다. 쇠고기 수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금년에 자급율은 50%이하로 하락하고 말았다.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 미국식품산업전시회가 성황리에 끝이 난 것을 보면서, 지난해 제1회 때 농민대표들이 호텔 앞에서 식품전을 반대하다가 닭장차에 실려 쓰레기처럼 난지도에 버려지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이제 92년 제3회 식품전은 이번 전시되었던 대부분의 식품이 백화점 슈퍼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개최될 것이다.

87년 과천종합청사의 대형유리가 깨어지고 자동차가 부서지는 격렬한 쇠고기수입반대와 89년 여의도광장을 메운 농민들의 쇠고기수입반대가 오늘날 쇠고기 자급율이 50%도 안되는 현실에서

낙타는 처음 천막에 들어갈때 코만 넣게 해달라고 사정한 후
앞다리, 몸통, 뒷다리를 들어 놓은 후 주인을 내쫓는다. 목화
농사, 밀농사가 그렇게 되었고 콩농사와 쇠고기는 거의 몸통
이 천막안에 들어왔다.

돼지고기 수입도 낙타의 코가 천막안에 들어온 신호로 보아
야 한다.

수입쇠고기 무제한방출이라는 용탄폭격으로 이
어지는 것을 이슥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낙타가
천막에 들어오는 우화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몇일전 일본에서도 국제식품전이 개최되었는
데, 한 전시장에 미국쌀 몇포대가(20kg) 전시된
것을 일본정부가 불법이라고 강제철거 시킨 것이
미일간 정치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우
리도 잘 아는 무역대표부의 칼라힐스대표이었고
이어서 국회의원, 베이커장관, 부시대통령으로 이
어졌다. 일본은 쌀의 경우에도 5% 정도는 수입
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다. 코만 천막안에
들어 놓자는데 그것마저 반대할 수 있느냐는 것
이다. 이에 반해 코가 들어오면 머리 다음에는
앞발, 몸통, 뒷다리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주인
은 천막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번 미국쌀을 전시조차 못하게 하는 것도 일
단 코가 들어오면 다음은 머리, 앞다리로 밀고들
어오는 것을 막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
이다.

얼마전 물가안정을 위해서 돼지고기 2천톤이
수입되었다.

조달청이 수입하는 것보다는 축협중앙회가 수
입하는 것이 좋고, 축협은 판매차익을 기금에 적
립하는 순서가 과거 쇠고기 수입 때의 수순을 밟
는 것 같아 입맛이 개운치 않다.

지난번 2천톤 수입물량이 판매되기도 전에 5

일본 3천톤을 추가수입하고 그후 3천톤을 수입
해서 금년에 8천톤을 수입해야겠다는 물가당국
의 의지가 신문기사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일
본정부의 쌀진열 강제철거를 생각해 본다.

물가당국이 소비자를 앞세워 농축산물의 하향
가격안정을 유도하지만, 지난 3월 14일 소비자모
임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은 농촌이 황폐해서 도
시로 몰리니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인 숨
쉬고 물마시는 것조차 문제가 되고 있다.

돼지고기, 쇠고기값이 비싼 것이 오히려 도시
소비자에는 이익이라고 주장하였다.

얼마후 폐놀방류사건과 식수원의 오염이 문제
되고 공해로 도시중심가에서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심각한 공해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시 소
비자도 농촌이 잘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 농축
산물 값은 어느정도 부담하는 것이 숨도 못쉬고
물도 마음 놓고 못먹는 것 보다는 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3월 29일에 정부는 94년까지 131개 품목의 농
축산물의 추가 수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농민을 농촌이라는 천막에서 쫓
아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숨쉬
고 물마시는 것도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영국의 시인 일리어트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
고 말한 것이 이땅의 농축산인에겐 공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